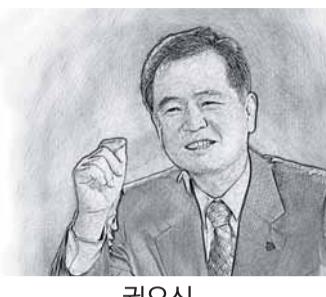


시연施連의 혼조실록 험 賢祖 實錄 探險

향약 만들어 전후戰後의 경주 향촌을 안정시킨 임란의 병장 王亂義兵將 구사재공(九思齋公, 1556~1636)



권오신
좌윤공비총회장 칼럼니스트

임진왜란(壬辰倭亂) 7년 전쟁 동안 조선인(朝鮮人) 60만 명이 학살됐다.

당시 인구의 10% 가까이가 왜군(倭軍)으로부터 희생되거나 일본에 끌려갔다.

전후 조선(朝鮮) 백성들의 삶, 달아난 민심(民心)이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도둑질은 예사고 걸핏하면 이웃 간에 싸움을 벌여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참극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등 혼란한 사회 분위기로 사람을 피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전후 극도로 혼란해진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향약(鄉約)을 만들어 민심을 바로잡는데 앞선 혼조(賢祖)가 화왕산(火旺山) 전투를 끝으로 귀향하신 의병장(義兵將) 구사재공(九思齋公)이시다.

자는 백원(伯元), 호가 구사재(九思齋, 휘諱복시復始)다.

조선의 6대 임금 단종(端宗)의 이모부이자 문종(文宗)과 동서지간이었던 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의 5대손이시니 판관공(判官公, 휘諱 철손哲孫)의 현손, 보공부장(保功部將, 휘諱 민敏)의 증손, 휘諱 순경舜卿공의 손자, 천사부장(天使部將, 오위의 종육품벼슬) 휘諱 영(寧)공의 아드님으로 명종 11년(1566) 경주(慶州) 강동(江東)에서 태어나셨다.

판관공(判官公, 휘諱 철손哲孫) 세보에도 명종이 제위했던 병진년 경주부 강동 출생으로 기록됐다.

부산 대포 전투 순절 의병장 오모재공(五慕齋公, 휘諱 복릉復興)과는 4촌 간이다. 사정공(司正公, 휘諱 수해壽海) 계의 병장들과는 유복을 갖 벗어난 사이.

눈을 뜨고 있는 시간엔 책을 놓지 않은 학행(學行)이 한양(漢陽)까지 알려져 임금 선조(宣祖)는 청년 구사재공(九思齋公)에게 봉직랑(奉直郎) 사재감정장(司宰監貞長, 관가나 궁중의 음식을 책임지는 자리)을 제수했을 만큼 공의 학才是 경주부(慶州府)를 넘어 한양까지 알려졌다.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며칠 만에 경주(慶州) 성까지 무너졌다. 당시 경주부 윤(慶州府尹)이 가족들을 데리고 죽장에 숨어 버린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위기를 보고 분연히 칭의하였다. 37살.

구사재공(九思齋公)이 경주(慶州) 월성月城 동쪽 남산南山 산허리에 진을 치고 북상하는 왜적(倭敵)의 식량(食糧) 보급로(補給路)를 끊은 전투가 칭의의 두 달여 만에 맞붙은 첫 전투였다.

임진년(壬辰年) 7월 27일에 시작된 영천성(永川城) 탈환전(奪還戰)에서 구사재공(九思齋公)은 비슷한 시기에 칭의했던 권사민(權士敏, 권응생(權應生), 죄진립(崔震立), 김준용(金春龍), 이눌(李訥) 등 경주지역 의병장 30명



구사재